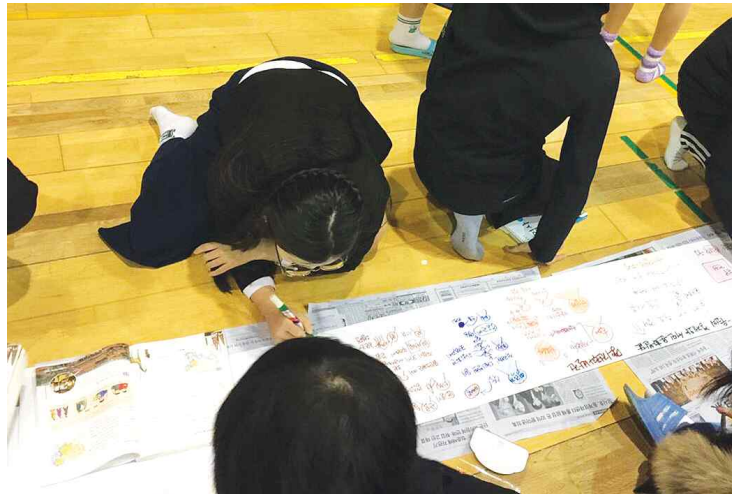


거꾸로 교실 도전하기

자유학기제를 발판삼아 학교 수업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거꾸로 교실’은 학생 중심 수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각광받고 있지요. 이 코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거꾸로 교실을 실천하는 교사들의 참신하고 유익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김영희 강원 동해중 사회·역사 교사의 거꾸로 교실

‘세계사수업박람회’, 학급마다 마련된 역사관 돌며 세계사 학습!



체육관에 모여 각 지역의 역사를 롤 페이퍼에 시대순으로 정리하는 학생들.
강원 동해중 제공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가 끝나도 방학까지 2~3주간의 시간이 남는다. 적지 않은 기간이지만 성적 산출에 필요한 모든 과정이 끝나면서 이 시기 수업은 파행 운영되기 십상.

김영희 강원 동해중 사회 교사는 지난해 말, 2학기 2회고사(기말고사) 이후의 어수선한 시간을 활용해 2학년 전 학생이 참여하는 ‘세계사수업박람회’ 수업을 3일에 걸쳐 진행했다. 미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역사 ① 교과 끝 부분의 일부 단원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거꾸로 교실을 진행한 것. 총 다섯 학급이 저마다 중국, 일본, 인도, 서남아시아, 유럽 등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세계 지역을 하나씩 맡아 해당 지역의 역사를 정리하고, 각 지역의 역사를 종합해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사는 “수업 진행을 위해 여러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양해를 구해야 했지만 학생부 작성 등 학년 말 업무가 몰려 있는 시기라 대부분 잘 협조해 주셨다”면서 “학생들 또한 영화를 보는 등 늘어져 있기 쉬운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수업 개요

교과	역사	학기	2학년 2학기	차시	10차시 이상
단원	VII. 통일 제국의 등장 VIII.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IX.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주요 핵심성취기준	[역9172]마우리아 왕조에서 쿠산 왕조에 이르기까지의 정치 변화와 불교의 성립 및 전파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역9174]그리스 폴리스로부터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에 이르는 정치 문화적 변화를 파악하고,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역9182-2]일본 고대 국가의 발전을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 요소와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역9185]서유럽 세계의 형성과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를 그리스도교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수업 내용	1. 각 학급이 맡은 지역의 역사를 모둠별로 분담해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2. 모둠별 탐구 보고서를 종합해 한 지역의 역사를 종합하기 3. 여러 학급의 탐구 보고서를 보며 다른 지역의 역사 학습하기 4. 역사와 우리 삶의 연결고리 찾아 발표하기				

차시	1일차(1~6교시)	2일차(1~4교시)	3일차(1교시)
수업	모둠별 탐구 보고서 작성	학급별 탐구 보고서 작성 타 학급의 보고서 학습	역사 교과 지식과 삶 연결짓기

※ 이 수업은 디딤영상 없이 학생 주도의 주제 탐구 학습으로 진행됨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1차시] 지역별 역사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학년 말에 진행된 이 수업은 2학년 전체 학급에서 동시 진행됐다. 각 단원의 분량을 고려,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해 5개 학급이 각각 △서양사 △중국사 △일본·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사 △인도사를 맡았다.

각 학급은 다시 6개 모둠으로 쪼갬다. 자신의 학급에서 맡은 지역 범위 내에서 역사 교과서의 소주제를 참고해 모둠별로 탐구 주제를 정한다. 주제 선정이 끝나면 모둠별 계획서를 제출해 교사의 검토를 거친 후 모둠별 탐구 학습을 진행한다. 학생들 스스로 역사 교과서를 참고하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신들이 맡은 부분의 역사를 종합·정리하는 탐구 보고서를 모조전지에 작성하는 것.

탐구 학습 과정은 철저히 학생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사는 강의를 하지 않고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만 자료 수집에 필요한 검색 키워드를 안내하거나, 내용 이해를 돕는 부가 설명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보다 깊이 있게 내용을 탐구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도 다양하게 안내한다. 영상 자료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EBS의 '5분 사탐 세계사' 영상 클립이 특히 유용하게 활용됐다.

탐구 보고서 작성 과정은 1교시부터 6교시까지 하루 전체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다른 교과목 교사들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과 간 협의가 완료되면, 학생들은 6교시 내내 모둠별 전지에 자신들이 맡은 역사 내용을 정리하며 ‘세계사수업박람회’를 위한 준비를 한다. 각 학급에는 해당 시간의 교과 담당 교사가 입실하지만 자신의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학생들의 탐구학습 활동을 감독한다. 다만 ‘세계사수업박람회’ 수업과 관련한 세부적인 지도·감독은 수업을 맡은 역사 교사가 직접 5개 학급을 수시로 순회하며 맡는다.



모둠별 보고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모습

[2차시] 세계사수업박람회 개최

2일차 수업은 1~4교시 동안 진행된다. 1교시에는 5개 학급 학생들이 체육관에 학급별로 모여 그간 탐구한 내용을 시대 흐름에 따라 기다란 롤 형태의 종이에 정리한다. 1모둠부터 나와 자신의 모둠에서 탐구한 내용을 ‘비주얼 씩킹’ 기법으로 정리하고, 이후 2~6모둠이 릴레이식으로 진행한다.

모든 모둠의 활동이 끝나면 반 전체가 나와 한 줄로 걸어가면서 종이에 그려져 있는 내용을 둘러보고, 자신의 학급이 담당했던 지역 역사의 큰 흐름을 파악한다. 이후 다른 학급에서 탐구한 내용도 자유롭게 둘러본다. 이 과정에서 개별 학급에만 국한되어 있던 교과지식이나 모둠 활동 방식, 창의적 아이디어가 학년 전체로 확산된다. 학생들은 친구를 통해 새로운 점을 배우면서 나눔과 공유를 통한 성장을 경험한다.

각 학급 교실로 돌아와 진행되는 2~4교시는 본격적인 ‘세계사수업박람회’다. 각 학급은 각 지역의 ‘역사관’이 되고, 학생들은 여러 역사관을 돌며 각 지역의 역사를 학습한다. 그간 모조전지에 작성한 보고서를 모두 벽에 붙여놓고 자신의 학급, 모둠을 방문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탐구 학습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차적으로는 학급 내 다른 모둠을 돌고 2차적으로 다른 학급을 방문해 다른지역의 역사에 대해 학습한다. 다른 모둠 방문은 ‘돌 남고 돌 가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 모둠마다 구성원 2명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남고, 나머지 2명은 돌아다니며 설명을 듣는 것. 중간에서 역할이 바뀌 모든 학생이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 모둠을 방문할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스탬프 투어’는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여러 학급의 다양한 모둠을 돌며 학생들이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하고, 교사는 메모 내용의 충실성 등을 따져보고 도장을 찍어준다.

[3차시] 역사 속 배움의 삶 연결하기

‘세계사수업박람회’의 마지막 수업은 배움과 삶을 이어보는 활동이다. 각 모둠에서 1명씩 차출해 구성한 학급별 대표 팀은 자신들의 학급에서 탐구한 내용 중 현재 우리의 삶과 연관이 깊은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 중국사를 공부한 학급은 ‘원제국의 민족차별 정책으로 본 오늘날의 인종차별 문제점’을, 서남아시아사를 공부한 학급은 ‘서남아시아 역사를 통해 살펴 본 현재 대한민국의정치현실’을 주제로 삼는 식.

발표 준비는 1일차에 지역별 역사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병행해 준비하도록 한다. 즉, 학급별 대표팀으로

뽐힌 학생들은 자신이 속한 모둠의 탐구학습을 줄곧 수행하면서 동시에 발표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표 팀에 속한 학생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에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중재가 필요하다.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3일차 1교시에는 체육관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대회’를 연다. 이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급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학급별 대표팀의 발표를 듣는 것. 이 과정은 탐구 활동이 교과지식의 배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 과거의 역사를 우리 현재의 삶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과정 설계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이 수업은 지난해 학년 말에 진행된 수업으로 별도의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학생들이 활동 과정에서 보여준 개인적 역량과 특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했다.

이 수업에서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재구성이다. 3개 대단원의 내용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 중학교 2학년 역사① 교과서의 ‘세계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

※ 교육과정 재구성 예시

교과서 단원 내용		⇒	교육과정 재구성
Ⅶ. 통일 제국의 등장	1. 통일 제국이 들어선 중국	중국사 일본사	통일 제국이 들어선 중국
	2. 인도의 통일		수·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3. 서아시아의 통일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4. 지중해 세계의 통일		인도의 통일
Ⅷ. 지역 세계의 형성과 발전	1. 수·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인도 및 동남 아시아사	인도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형성
	2. 인도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의 형성		무굴제국의 성립과 동남아시아의 발전
	3. 이슬람 세계의 성립과 이슬람 제국의 발전	서남 아시아사	서아시아의 통일
	4. 유럽 세계의 발전과 크리스토퍼 문화		이슬람 세계의 성립과 이슬람 제국의 발전
Ⅸ. 전통 사회의 발전과 변모	1.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오스만 제국과 서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2. 무굴제국의 성립과 동남아시아의 발전	서양사	지중해 세계의 통일
	3. 오스만 제국과 서아시아 국가들의 발전		유럽 세계의 발전과 크리스토퍼 문화
	4. 중세 유럽의 변화		중세 유럽의 변화

거꾸로 교실을 직접 기획·지도한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 거꾸로 교실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미처 다 못 나간 진도, 학생들 스스로 탐구하며 성취도 쑥

Q. 이 수업을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3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 수업은 다른 교과 시간을 빌려 써야 한다. 여러 교과목 교사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만약 한 학년의 역사 수업을 2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고 있는 경우 역사 교사끼리도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수업은 진도 부담이 큰 학기 중보다는 학기가 마무리 되어가는 기말고사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미 성적 처리가 끝난 학기말에는 수업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영화를 보거나 자율학습으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가 쉬운데 이런 시간을 활용하면 보다 협조를 얻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 수업은 1년간 역사 수업을 진행하며 막바지에 미처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역사 교과서 뒷부분을 활용한 수업이었기 때문에 1학기 말이 아닌 학년이 모두 끝나는 2학기 말에 진행됐다.

Q. 디딤영상이 없는 이유는?

디딤영상은 없지만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다방면으로 안내해줬다. 대표적인 것인 바로 EBS의 '5분 사탐 세계사' 클립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5분 사탐 세계사' 외에 자신의 모둠 주제에 맞는 영상 자료를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다양하게 찾아보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탐구해 가는 태도가 잘 갖춰진 학생들이라면 디딤영상이 없어도 무방하다.

Q. 수업 효과는?

자신의 모둠을 찾는 여러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다. 특히 평소 수업시간에 성취도나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 위주로 설명을 맡도록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자신이 설명한 모든 내용을 달달 외울 정도가 됐다.

또한 모둠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주제에 맞는 자료를 찾고 탐색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3일차에 체육관에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발표하는 경험은 단순히 교실에서 발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경험이어서 학생들에게 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Q.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은?

이 수업만으로 단순히 높은 참여도를 기대하긴 어렵다.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절대적인 만큼 학생 중심의 활동 수업을 많이 해 본 학생들일수록 참여도와 수업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평소에도 비슷한 유형의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학생들로부터 모둠 활동 계획서, 역사 프레젠테이션 설계서를 제출받아 학생들의 목표와 진행 과정을 교사가 들여다보고 조정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학습 과정 자체에 교사가 개입하진 않지만, 탐구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중재하는 역할로서 교사의 개입은 필요하다.

Q. 거꾸로교실에 도전하는 교사들이 참고할 점은?

이 수업을 설계·진행할 때 교과서에 등장하는 역사적 지식을 주도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기능적 목적도 물론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둠 활동이라는 방식을 통해 서로 협력해 지식을 탐색해가는 과정, 모둠 내에서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결정하는 과정, 갈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소통역량, 리더십, 탐구력 등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뒀다.

하지만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 간의 소통이나 협력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수업 자체도 교사 주도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반드시 이런 수준 이상의 결과물은 내야 한다’고 학생들을 압박하기보다 모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점이나 꼭 거쳐야 하는 과정 등을 안내하며 스스로 공부하고 활동하는 과정 그 자체에 집중하기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미래교실네트워크(www.futureclassnet.org)에서
더다양한 거꾸로 교실을 만나 보세요.

